

문무왕과 용오름

<문무대왕과의 만남>

대구대실초등학교 박○○



문무대왕릉에 대한 인터뷰

문무대왕과의 인터뷰

Q. 어디에 묻히고 싶으셨나요?

A. 저는 동해안의 바다에 묻히고 싶었습니다.

Q. 왜 무덤을 육지에 만들지 않고 뱃가루를 대왕암에 뿌리도록 하였나요?

A. 제 유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저는 무덤을 만들어 세금을 거두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 습니다. 또한 용이 되어 신라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.

Q. 왜 죽은 뒤 용이 되고 싶어했나요?

A. 제가 용이 되고 싶어한 이유는 용이 되면 신라를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.



만파식적에 대한 인터뷰



Q. 만파식적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?

A. 만파식적은 세상의 온갖 파란(萬波)을 없애고 평안하게(息) 하는 피리(笛)라는 뜻입니다.

Q. 어떻게 만파식적이 만들어 졌나요?

A. 만파식적은 제 아들인 신문왕이 내가 알려준 곳으로 와 갈라졌다 합쳐지는 대나무를 가지고 만든 피리입니다.

Q. 만파식적을 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.

A. 만파식적을 한 번 불면 몰려왔던 적군이 물러가고 앓던 병이 나으며 홍수가 나든 가뭄이 오든 무엇이든지 해결 가능합니다.

동궁에 대한 인터뷰



Q. 왜 동궁이자 잔치를 하던 곳인 임해전을 만들었나요?

A.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린 신라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.

Q. 삼국통일을 하고 이 동궁을 지어 이곳에서 월지를 바라볼 때의 기분은 어떠했나요?

A.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. '내가 진짜로 삼국통일을 한 것이 맞는가'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한 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. 후손들이 이 신라를 잘 맡아 이끌어주면 좋으련만...

Q. 임해전 터에서 발견된 유물은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나요?

A. 2가지를 소개해 드릴건데 먼저 나무로 만든 주령구가 있습니다. 주령구는 연회나 잔치에서 벌칙을 주기위한 놀이기구입니다. 두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가위인데 이 가위는 초심을 자를 때 활용했다고 합니다. 굉장히 화려하지요.

월지에 대한 인터뷰



Q. 왜 월지가 안압지로 불렸나요?

A. 조선의 선비들이 화려함은 사라지고 오리와 기러기가 떠다닌다고 해서 안압지라 부릅니다.

Q. 왜 월지에 3개의 섬을 만들어 놓았나요?

A. 저는 월지를 만들 때 바다이자 신선이 사는 곳을 표현하려고 했기 때문에 3개의 섬을 만들어 신선의 섬을 표현하였습니다.

Q. 왜 연못가가 꼬불꼬불한 선으로 만들어 졌을까요?

저는 이 연못을 만들 때 바다를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바다의 꼬불꼬불한 해안선을 따라 만들었습니다.

에필로그

- 1박2일 동안의 문무대왕과의 만남이 나의 애국심을 키워주고 지식적인 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. 경주 속에 숨쉬는 문무대왕을 만나며 그 분과 대화한 것을 인터뷰 형식으로 정리하였다. 힘겹게 삼국통일을 완성했을 때의 뿌듯한 마음과 신라를 잘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, 천년 신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... 어느 왕보다 문무대왕의 신라사랑이 무척 대단한 것 같았다. 나도 21세기의 신라인 대한민국을 더욱 사랑하고 아껴야 겠다.